

대불산단 조선업계 인력난 숨통 트일까

원·하청 상생 연대 추진 등
격차 해소·구조 개선 대책 마련
현실성 부족해 실효성 '글썽'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조선업계의 숨통이 트일까. 저임금·고강도 업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 대불산단 근로자들이 현장을 이탈,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광주일보(2022년 10월 7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고착화된 조선업계의 현실을 당장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불산단 조선업계 고질적인 인력난 심각=조선업계의 인력난은 단단계 하도급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 고용구조의 특징상 협력업체 중심 생산으로 이뤄지는데, 대불산단 역시 마찬가지다. 조선업의 단단계 하도급 구조는 원·하청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중공업 등 원청은 적지 않은 일을 하청에 맡기는데, 이 하청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물량팀(제2하청)에 다시 일을 맡기는 식이다.

정부가 최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50~70%에 불과했다.

연평균 근로일수는 원청 180일, 하청 270일로 조사됐다. 하청 근로자는 야근·특근이 잦고 쉬는 날에도 일할 때가 많아 원청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들보다 더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는 것이다. 이처럼 임금은 적지만 업무강도는 강하고, 중대 재해사고 발생이 높아 근로자들은 조선업계를 떠나는 것은 물론, 신규인력 확보도 어렵다.

특히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전남의 대불산단은 그 상황이 더 심각하다.

박종식 부연구위원은 전남의 경우 2011년 이후 전일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인구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117만명에서 2030년 100만명, 2050년에는 66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갈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불산단은 울산과 거제 등 타지역 업계보다 인력 확보 어려움이 더 심한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도 많다. 대불산단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70% 전후로 추정되는데,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근무환경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조선업을 기피해 인력난은 해마다 악화하는 실정이다.

◇정부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글썽'=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마련한 이번 대책의 내용은 크게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임금 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자율'에 찍혀 있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원하청은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 체계 확립, 단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협약에 참여하고 이행한 기업에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 등을 우대 지원한다. 숙련 퇴직자 재고용 장려금과 기술 전수 수당, 계속 고용 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 비용 등 '조선업 상생 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조선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1년에 600만원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임차료·교통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강화를 도모하고, 조선업의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를 최우선 배정한다.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며 "고착화된 이중구조를 없애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으나 갈수록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조선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당장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선업 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추진

당정, 입법 전 행정권고 조치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데이터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서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다른 데이터 센터로) 스위치 해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을 연말 이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진상규명 첫 발 여순사건 시급한 과제는 ▶6면
- 루오전 '미제레레' 해설 정몽모 신부 ▶16면
- 월드컵 D-31 원정 16강 꿈 이룰까 ▶18면

기아 오토랜드 광주, 2025년부터 전기차 생산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2025년부터 전용 전기차 생산될 전망이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오는 2025년부터 오토랜드 광주에서 전기차 신차 생산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기아는 올해 경영설명회에서 2027년까지 오토랜드 광주에서는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아 광주 오토랜드에서는 스포티지와 셀토스를 비롯해 쏘울과 봉고 등 차종을 생산 중이

다. 전기차 모델로는 쏘울EV와 봉고EV를 생산하고 있으나, 전용 전기차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이 오토랜드 광주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요구, 이에 따라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이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향후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18일 기아 노사가 임단협 교섭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노조가 요구한 오토랜드 광주에서의 전기차 생산도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기아 측은 "임단협 과정에서 전용 전기차 모델을 오토랜드 광주에 배정해 생산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차종과 출시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2023
저나바마이행
남도이온
JEONNAM

전남여행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
남도여행길잡이 검색